

미국에서 본 아시아 산업 섬유 자재 시장

- 국제 산업 패브릭 협회 총재 강연 내용 중 일부분

다음은 텐트(tent)나 외부로부터 시설이나 물품을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막(幕) 소재를 중심으로 한 산업용 패브릭의 국제단체인 국제 산업 패브릭 협회(IFAI, 國際 産業 Fabric 協會, Industrial Fabrics Association International)의 프레지던트(president)이며 CEO(Chief Executive Officer : 最高 經營 責任者)인 스티븐 M 워너씨가 일본을 방문하여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 산업용 패브릭이 갖고 있는 중요성을 강조한 강연 내용의 일부분이다.

◎ 미국 산업계에 큰 변화 일어나

이번 강연에서는 먼저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예측해 본다. 최근 3년 동안에 미국의 산업 자재 업계에서는 이제까진 경험해 보지 못한 변화가 일어났다. 경제의 리세션(recession : 경기 후퇴)을 경험함으로써 업계 전체의 규모(size)가 리셋(reset)되고 있다. 앞으로 3년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며, 현재의 규모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많은 소재 메이커나 기기 공급자(機器 supplier)의 모습이 사라졌다. 남아 있는 서플라이어도 특정 분야로 특화하고 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고객의 제품 라인이 다양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규모 다국적 기업이 사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고객은 많은 시장으로부터 상품을 조달하려 하고 있다.

국제적인 사례를 보면, 흥미가 있는 것은 자동차와 건축과 관련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자동차 생산은 최근 3년 동안에 1,600만 대이었던 것이 1,100만 대로까지 줄어들고 있다. 자동차 1 대에 약 35m²의 패브릭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500만 대 × 35 m²의 비즈니스 규모가 없어졌다는 계산이 나온다.

두 번째 변화는 금융 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여를 잘 해 주지 않는 데에 따른 악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 경제 전체적으로는 서서히 리세션에서 회복되고 있다. 2010년의 미국 GDP 성장은 9%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순조롭지 못하다. 그런 것도 역시 소비가 본격적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국민의 예금 잔고는 과거의 10배 수준으로 높아져 있으며, 역시 소비보다는 위기에 대비하여 예금하여야 한다는 의식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경기가 바닥을 쳤는데도 한 번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잊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가장 현저한 지표는 고용이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실업률이 9% 대(臺)로 높은 수준이다.

◎ 깜짝 놀랄 만한 것 - 군사 및 건축 분야와 원유 유출 사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10년에 미국 산업 자재 업계에 깜짝 놀랄 만한 신기원을 만든(epock-making) 시장이나 사고(事故)로 3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군사 및 건설 분야와 멕시코만(Mexico灣)의 원유(重油) 유출 사고이다.

군사는 오직 하나인 미국 국내 산업으로써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정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중요한 군수품은 국산품을 사용하도록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마트 텍스타일 개발도 군(軍)이 리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혁신적 제품은 군에서 실용화된 후에 민간에 보급되고 있다. 실제로 군의 수요는 2009년에는 2008년과 비교하여 28% 증가하였다. 아프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 때문이다. 다만 점차 분쟁이 끝나가고 있어 2010년에는 8.5%가 줄어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설 분야는 정부의 경기 자극책의 영향을 받아 호전되어 왔다. 특히 고속도로 건설이 많아졌으며 성장률은 4.5%이지만 6억 7,700m²의 산업용 패브릭 수요가 발생되었다. 다만 이는 자연스러운 수요 회복과는 다르며 어디까지나 인공적인 수요라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최대의 사고가 멕시코 만(灣)에서의 원유 유출 사고이다. 이것은 세계 역사상 가장 심각한 환경 파괴 사고이다. 그리고 이 재해와 싸우는 데에 있어 산업용 섬유 업계는 이를 수습하는 데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대량의 오일-펜스(oil-fence : 유출된 oil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해면을 둘러싼 울타리)가 필요하게 되어 글로벌하게 조달되고 있다. 또한 현지 작업원이 사용하는 텐트나 임시 수용소(shelter)도 필요하다. 오일

흡착제도 필요한데 이것은 부직포제이다. 사용하고 난 오일 흡착제를 폐기하기 위하여 라이너(liner)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동안 작아졌던 미국의 산업 자재 업계 시장은 회복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이상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

◎ 아시아 시장은 계속 확대 중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눈을 돌려 16개 나라에 초점을 맞추어 보기로 한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6개 나라 중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산업용 섬유 수출은 베트남이 16%, 인도네시아가 20% 각각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는 3가지 요인이 있는데 ‘에콜로지 대응(ecology 對應),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정부의 인프라 정비 프로젝트’ 등이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에너지나 물 처리, 공기 오염 대책에 연간(年間) 3,000만 달러 이상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 특히 해수의 담수화 처리는 큰 시장이 될 것이다. 또한 대기 오염 대책은 공업화 과정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그렇다.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예를 들자면 중국에서는 자동차 대수가 크게 늘어나고,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동시에 고령화도 확대되고 있어 메디컬 용도에 대한 섬유의 수요가 커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공공 투자이다. 인도네시아는 앞으로 70억 달러의 공공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도 현재의 예산 규모를 3년간 지속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27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태국(Thailand)은 59억 달러 투자할 예정이다. 이들은 일례(一例)에 불과하다. 즉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맹렬한 세력으로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조업이 발전하고 있고 물류망도 성장하고 있다.

◎ 전략적 낙관주의가 중요

이들의 변화에 대응하는 IFAI의 전략으로, 2011년 3월에 싱가포르에서 국제 산업용 섬유 전시회인 IFAI 엑스포 아시아(IFAI Expo Asia)를 개최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고객을 한 자리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싱가포르는 국제적인 경제 센터이며 이제 까지도 많은 국제적인 이벤트를 성공시킨 실적이 있다.

이미 전시회 참가(出展) 예약은 50%에 이르며 10월에는 70%를 넘을 것이다. 일본에서도 ‘다이와보 프로그레스, 간보 프라스(Kanbo Pras Corporation), NI 데이진 상사(帝人 商事), 히라오카 오리센(平岡 織染)’의 4개사가 출전을 밝혔다. 전시회에서는 많은 심포지움이나 기업 방문 투어와 같은 유익한 옵션도 많이 준비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 속에서 나는 사카모토 료마(坂本 龍馬)로부터 배웠다. 사카모토는 약 100년 전에 일본이 큰 변화를 체험할 당시에 활약한 인물이다. 그의 행동은 변화하는 데에 있어 ‘전략적 낙관주의’가 있었다고 느꼈다. 현대의 우리들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 사카모토로부터 배워서 전략적 낙관주의로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